

희소동물 일본장수도롱뇽

한자키란?

한자키는 일본 고유종인 일본장수도롱뇽(*Andrias japonicus*)을 이 지역에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중국과 북아메리카에 서식하는 2 종의 동류와 마찬가지로, 이 완전 수생 양서류는 몇백만 년이라는 진화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대부분 변화하지 않은 살아 있는 화석입니다.

일본의 정식 명칭으로 오산쇼우오라고 불립니다. 오는 ‘크다’는 뜻이며 산쇼우오는 영어 salamander 의 총칭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한편 ‘한자키’에는 ‘반으로 갈라졌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절단된 손발을 재생하는 일본장수도롱뇽의 능력을 가리키며, 더 나아가 반으로 잘려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민간전승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유사종과 마찬가지로 일본장수도롱뇽은 현존하는 도롱뇽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입니다. 일본장수도롱뇽은 15~20 세에 성성숙하며, 몸길이 150cm, 체중 35kg 까지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명은 70 년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자키는 머리 앞쪽에 작은 눈이 있습니다. 사물을 얼마나 잘 볼 수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자키는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기에 입 근처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에 달려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한자키는 분별없이 물건을 먹게 되므로, 크게 벌어지는 턱과 작고 날카로운 이를 이용해 게나 물고기, 다른 양서류, 벌레, 거기다 포유동물까지 붙잡아버립니다. 한자키는 대부분의 도롱뇽 종이 그렇듯이 아가미가 붙은 상태로 태어납니다만, 3 세 정도가 되면 아가미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피부 호흡을 합니다. 몸의 측면에 있는 주름을 펼쳐서 피부의 표면적을 늘려 산소 흡수를 촉진합니다. 이 때문에 한자키는 호흡하려면 산소를 충분히 퍼지게 해주는 청결하고 빠르게 흐르는 물이 필요합니다.

일본장수도롱뇽은 바닥이 자갈인 강이나 도랑에 서식하며, 가장자리 주변의 구멍과 은신처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구멍과 은신처는 교미를 위한 굴의 역할도 합니다. 각각의 굴을 수컷 한 마리가 지키고, 자신의 세력권에서 산란하는 암컷을 끌어들이려는 것입니다. 산란(통상 8 월 말부터 9 월 중순) 이 끝나면 이 ‘굴의 주인’ 은 알을 수정시키기 위해 정자를 방출하고, 이후 6 개월간 알과 알에서 부화한 유생을 지키면서 지냅니다.

슬프게도 댐 건설이나 콘크리트를 이용한 독 보호 작업 등 인간의 활동이 한자키의 서식 환경을 크게 파괴하고,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성이 관리하는 멸종위기 지표인 적색 목록의 2020 년판에 따르면, 일본장수도롱뇽은 준멸종위기(NT)에서 멸종위기 II 류(VU)로 단계가 상승했습니다.

※ 일본 환경성에서는 멸종위기종을 정리한 ‘적색 목록’을 발표했으며, 멸종 위험이 큰 순 및 상황에 따라 동식물을 9 개의 범주로 나누었습니다. 위부터 ‘멸종(EX)’, ‘야생 멸종(EW)’, ‘멸종위기 I 류(CR+EN)’, ‘멸종위기 IA 류(CR)’, ‘멸종위기 IB 류(EN)’, ‘멸종위기 II 류(VU)’, ‘준멸종위기(NT)’, ‘정보 부족(DD)’, ‘멸종이 우려되는 지역 개체군(LP)’로 나뉩니다.

지역 문화 속 한자키

이곳에는 길이 10m 의 한자키가 가축이나 마을 사람을 먹어 치워 마을을 곤경에 빠뜨린다는 민화가 남아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괴물을 퇴치한 자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했고, 히코시로라는 남자가 지원했습니다. 히코시로는 이에 단도를 짊 물고 물로 뛰어 들었습니다. 한자키는 바로 히코시로를 통째로 삼켰지만 히코시로는 한자키의 배를 갈라 찢었고, 한자키를 퇴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히코시로의 집은 기묘한 소음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윽고 히코시로와 히코시로의 가족 모두 석연치 않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복수심으로 타오르게 한 한자키를 진정시키기 위해 신사를 건립했고, ‘한자키다이묘진’으로 모셨습니다.

매년 8월 8일에는 유바라초에서 이 독특한 신에게 경의를 표하고, ‘한자키 축제’를 개최합니다. 붉은빛이 도는 암컷과 검은 피부를 지닌 수컷 한자키의 조각상을 실은 2개의 거대한 수레가 춤과 라이브 연주에 맞춰 거리를 행진합니다. 어두워지면 한자키 모양의 제등을 장식한 수레가 축제에 더해지고, 축제는 불꽃으로 끝을 맺습니다.

한자키를 만나다

숨어서 서식하는 야생 한자키를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마니와를 방문하시는 분은 1971년에 설립된 연구·보존 시설인 ‘한자키 센터’에서 이 보호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알 속의 배아부터 완전히 성장한 개체까지 모든 발육 단계에 있는 수많은 한자키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에서는 몸길이 150m, 체중 30kg 이상을 자랑하는, 보호하는 성체 중에서 획기적인 크기를 지닌 한자키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전시를 통해서 이 희귀 동물의 서식 환경과 지역 내 전설에서 한자키가 묘사되어온 모습,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한자키 보전 활동 등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